

새마을 運動의 論理 및 그 體系定立

金雲泰
(敎授)

目 次

- 一. 새마을 運動의 意義
- 二. 새마을 運動의 問題提起의 論理
- 三. 새마을 運動의 理論體系

一. 새마을 運動의 意義

새마을 運動이란 概念이 우리 나라에서 最近 3, 4 年內로 등장하여 政府의 強力한 主導 힘에 急速히 보여되고 國內外에 [關心을 보으고 주목을 끌게 된 것은 韓國의 現代化過程의 現時點에서 政治, 經濟, 社會的 狀況에 비추어 이에 對應하고자 하는 하나의 國家發展方式이며 社會運動의 提起로서 그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一般的으로 國家의 發展이나 社會의 發展이나 또는 個人的 發展을 不問하고 그 發展에 있어서서 缺差를 가져오는 主要 要因을 分析해 보면 여러 가지 基盤的環境與件의 差異도 물론重要하지만 그 보다도 人間的 意志와 努力의 差異에 起因하는 點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게 된다. 즉 아득히 豐富한 資源이나 훌륭한 基盤的環境與件이 具備되었다 할지라도 結局 人間의 能動的意志와 적극적인 努力가 加해지지 않는다면 그 環境的與件도 疲弊된 資源으로서 停滯하고 潛在的인 可能性이 溫存된차 티以上의 開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當面하고 있는 이 落後現象은 歷史的으로 外部로부터의 壓力과 侵略이 우리 나라의 올바른 發展을 阻害한 점을 評議하고자도 政府의 리더쉽을 포함한 人間의 意志와 努力의 缺如에서 結果된 것이라고 判斷되는 것이다. 새마을 運動은 이러한 觀點에서 國家와 社會의 個人的 發展을 成就하려는 所謂「人間努力의 方向轉換策」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回顧하건대 60 年代에 들어와서 政府가 推進한 지난 10 年間의 政策方向은 祖國近代化를

爲한 第一段階作業인 基本的 國力培養을 内容으로 하는 經濟基盤의 構築에 主力하였으며 第一次, 第二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을 通하여 國家의 基幹產業과 工業基地의 育成, 輸出增大 및 生產과 流通의 動脈인 道路網의 高速化 등 主로 點과 線의 開發에 專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第一段階作業의 遂行을 通하여 1960年代의 焦眉의 急先務였던 經濟基盤이 構築되고 아울러 國家와 民族의 地力이 어느 程度 伸張되었으나 이를 爲한 高度經濟成長政策은 產業別, 地域別 開發의 隔差를 招來하고 社會構造上에 不均衡을 助長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產業別, 地域別 隔差를 緩和하고 特히 落後된 農漁村의 地域社會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政策이 1970年代의 課題로서 提起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1970年代의近代化는 그 間의 開發의 열매가 國民各者の 손에 끌고루 돌아가고 그것이 生活向上에 直結되는 作業이 되어야 하겠다」는 朴大統領의 問題의 提起가 示唆하고 있는 바와 같다.

1971年度 經濟企劃院 經濟白書에 依하면 1962年부터 1971年까지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9.9%이며 이를 產業別로 살펴 볼 때 工業分野는 17.7%(製造業은 18.4%)란 높은 成長率을 가져 来지만 農業分野는 不過 4%란 沈帶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1962年부터 1972年까지의 產業別 國民總生產의 構成比의 變化를 살펴 보면 工業分野는 16.5%(製造業은 14.6%)에서 21.9%(製造業은 20.8%)로 높아났으나 農業分野는 33.6%에서 28.2%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이期間에 工業分野는 急激히 成長하여 經濟發展基盤을 構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積極成長의 地力으로서 이제는 農漁村近代化를 爲하여 主力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60年代에 基本課題였던 經濟基盤의 構築이란 祖國近代화를 爲한 第一段階作業이 어느 程度 이룩되었으므로 이제는 祖國近代화를 위한 第二段階作業인 均衡成長과 地域社會開發을 指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第三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農漁村投資計劃에 重點을 두어 農漁村地城에 對한 開發과 中小都市開發을 主眼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이와 같이 政府는 祖國近代화를 爲하여 段階別로 計劃을樹立하여 強力히 推進하여 왔으며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地域社會住民의 自發的이고 積極的인 參與와 發展努力이 要請되는 가운데 새마을 運動을 政策的으로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民族史의in 至上課題인 平和的in 國土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南北對話가 進行中에 있고 1971年 七·四 南北共同聲明과 1973年 6·23 特別外交政策宣言을 계기로 祖國의 平和的in 統一課業을 主導的으로 推進하고 國際社會에 있어서 地位向上을 爲한 國力의 加一層의 培養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國民의 統合을 促進해 줄 수 있는 政治, 經濟, 社會面에서의 여러가지 劇期的이며 發展的인 改革과 變革의 轉換이 要請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새마을 運動은 하나의 汎國民運動으로서의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새마을運動은 政府의 指導와 國民各者の 自發的 同意와 參與가 融合된 國民總和를 바탕으로 한 實踐的인 近代化 戰略이라고 볼수 있겠으며 이는 本來 農村地域을 中心으로 農民들의 自助, 自立, 協同을 바탕으로 한 農漁村近代化 運動에서 出發하여 近者에 이르러 都市의 새마을 運動, 그리고 軍의 새마을 運動 등 그 範圍를 擴張하고 있는 傾向으로 미루어 보아 國家社會發展을 위한 하나의 政治的 象徵으로서의 意義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元來 이러한 汎國民的 努力은 國民各者が 各各 獨立된 個體로서가 아니라 한 地域社會協同體內의 構成員으로서의 共同開發을 위하여 協同의으로 努力할 것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무릇 人間 個個人이 自己發展을 위하여 個體的으로 努力한다는 것은 人間活動에 있어서의 普遍的인 現象이다 하겠으며 또한 地域住民들이 社會發展過程에서 地域主體의 意識과 態度를 탈피하고 漸次 地域客體의 意識과 態度를 갖게 되며 한편 個別主義의 住民意識이 社會發展過程에서 普遍主義의 住民意識으로 昇華되는 것이 住民意識構造의 一般的 變移原則이라고 하겠다. 이 경계에 住民들의 意識構造가 地域客體의이며 同時に 個別主義의 경우에는 아노미(Anomie)의 意識狀況이라고 하겠으며 反對로 社會連帶性을 지닌 地域共同社會를 뒷받침하는 意識狀況은 地域主體의 態度와 普遍主義의 住民意識을 바탕으로 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普遍의 個個人의 個體的 努力を 地域社會單位로 直結시켜 하나의 共同體의 集團努力으로 昇華시킨 뒤 그 集團努力으로서 地域社會의 開發을 推進하려는 것이 새마을 運動일 진데 새마을 運動은 地域住民들이 個別的으로 自己 고장에 對한 地域主體의 愛着心을 가지고 地域社會住民으로서의 새로운 連帶意識을 바탕으로 이들 地域社會住民이 '實踐主體가 되어 自助的, 協同的 努력을 傾注할 것을前提로 한다.'

여기에서 새마을運動은 原則上 政府主導보다도 民間主導下에 이루어져야 할 性格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즉 새마을運動은 地域社會住民의 自發的, 自助的 協同努力에 依하여 住民들 스스로가 生活態度와 精神姿勢를近代化하고 革新하며 住民들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生活環境을 發展改善해 나가는 地域社會開發運動 또는 社會革新運動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國民運動는 點火하고 制度화하는데 있어서 政府의 指導와 支援이 必要하기 때문에 그 初期段階에서 政府主導型의 地域社會開發政策을 推進하는 것이 不可避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長主國家에 있어서 政府主導型의 開發戰略에는 限界가 있음을 忘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政府主導下의 開發政策을 推進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거기서 일어나는 限界性을 民間主導型으로서 점차 補完하면서 可及的 民間主導型化 하는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새마을運動은 결코 一時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長期的 恒久的으로 持續되고 生活化되어야 할 運動이며 그것은 國民各者の 生活向上과 自由로운 成長, 國家의 發展과 民族의 中興을 이룩하려는 祖國近代化 理念과 一致함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爲解々,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自助, 自立, 協同精神이 必要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二. 새마을 運動의 問題提起의 論理

一 般 的 으로 社會開發과의 關聯下에서 새마을 運動이 主張되는 경우에는 地域住民의 經濟 生活의 向上, 生活環境의 改善, 住民意識의 近代化, 住民行動樣式의 近代化 等의 問題意識이 根底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 運動이란 概念의 成立經緯와 그 內容에 關해서는 前述한 바 같거니와 새마을 運動의 理念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첫째로, 問題의 認識이 產業化, 또는 都市의 工業化의 進展에 對한 反應으로서 理解되는 경우로서 高度經濟成長의 副產物로서 派生된 產業構造, 社會構造의 不均衡과 疎外現象을 解消하려는 努力으로서 理解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歷史上 地域社會開發에 해당한 社會運動이 여러 차례 있었다. 즉 朝鮮王朝 後期의 鄉約制度, 日帝時代의 自力更生運動, 그리고 8·15 舜放後의 一連의 地域社會開發的인 試圖가 있었으나 그 規模와 內容에 있어서 比較的 限定된 것이었고, 持續的인 것이 되지 못했다. 近來의 새마을 運動은 一. 二次 經濟五個年計劃에 依한 高度成長의 反應으로서 政府의 積極的 主導下에서 등장한지 불과 3, 4 年의 歷史밖에 되지 않음으로 그 將來의 恒久性은 未知數라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새마을 運動이 社會全體의 都市化過程에 對하여 積極的인 役割을 進行하는 것으로서 乍然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 運動은 本來 農村地域共同社會의 傳統을 維持하면서近代化하는 意味를 內包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것은 現代社會의 都市化現象의 擴大, 深化가 가져다 준 地域社會 生活基盤의 慢速한 破壞나 또는 生活秩序의 「아노미」(Anomie)化에 對抗하는側面이 強하다. 즉 새마을이 志向하는 目的是 連帶的인 共同生活이며 그것은 無自負한 因習에 依한 結合이 아니고 自己의 生活을 自覺한 人們들이 地域社會問題와 對決하여 서로운 連帶에 依한 解決을 目標로 삼음으로써 상실된 地域生活感覺을 되찾고 地域의 生活基盤을 새로이 形成하고자 하는 試圖라고 하겠다. 따라서 地域社會의 連帶意識이 積極的인 位置를 차지함으로써 그것을 通하여 都市化를 指向할 뿐더러 都市化社會의 弊害에 對處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問題提起의 對象種類가 地域社會의 가장 身邊의 生活問題에 關聯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새마을 運動의 對象이 되는 生活問題는 生活環境과 生活圈의 擴大와 더불어 質的 으로나 量的으로 그 範圍가 넓어져 간다고 할 수 있다.例컨대 새마을 文庫, 새마을 金庫, 公會堂, 體育館, 學習室, 運動場 等의 社會教育施設, 厚生施設, 保健厚生施設 그 밖에 老人問題, 어웃간의 連帶關係의 退化傾向에 對한 對策 등이 現代生活에 있어서 深刻한 問題로서

그 解決을 재촉 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새마을運動은 하나의 國民運動으로서 住民의 自發的 自律的 參與가 不可缺한 것으로서 考慮되고 있다. 즉 그 運動은 住民運動을 通한 地域社會問題의 參與가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새마을運動은 單純히 地理的인 範域이나 기타의 物理的인 領域에 依해서 단이 規定되는 것이 아니고 一定한 價值와 意識面에 對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共感의 體系가 새마을을 形成케 하느 것이라고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感情, 共同利害意識, 人間回復에의 情緒的 共感 등이 새마을을 形成시키고 있다는 認識이다.

끝으로 새마을을 基盤으로 한 새로운 市民像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市民觀念은 理念的으로는 고사하고 現實的으로 形成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制度的으로는 市民의 地位와 權力이 規定되어 있으면서도 市民의 理念이 지닌 個人과 社會의 緊張關係가 理解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市民社會를 自力으로爭取한 經驗이 희박하기 때문에 本來의 意味에서의 市民은 쉽게 成立되기 어렵다. 이에 對해서는 市民으로서의 個我를 確立함으로써 解決하고자 하는 近代主義的 市民像接近이 支配적이었으나 地域社會理論家들은 地域社會에서의 個人을 파악하고 다시 地域共同社會라는 生活意識에 基礎를 둘으로써 地域生活로부터 派生한 새로운 型의 連帶性에 바탕을 둔 市民像을 想定하는 것이一般的傾向이다. 물론 이는 近代主義的 市民像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며 散漫하게 흩어져 있는 個人이 아니고 連帶的 個人을 주장하고 있는데 特徵이 있다 하겠다.

다음 새마을運動理念과 地域開發論과의 差異는 經濟發展計劃과 社會開發과의 關係에서 나타난다. 國際社會에서는 社會開發思想에 두 가지 形態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後進國型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社會開發은 經濟開發에 先行할 것이 要求된다. 즉 發展途上國 내지 後進國에 있어서는 經濟開發을 위한 最低限의 要件이 缺如되고 있으며 教育水準, 生活意識, 階級制度, 宗教, 慣習 등은 住民들을 모든 面에서 구속하고 經濟發展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 있는 國家에 對하여 必要한 것은 文盲을 적게하는 것이며 迷信을 打破하고 發展志向의 生活意慾을 높이고 적어도 最低限度의 經濟活動이 可能하게 하기 위한 條件을 具備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先進國으로부터의 資本이나 技術의 援助는 無意味할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觀點에서 社會開發이 要請된다. 이에 對하여 先進國型의 社會開發은 經濟發展에 對한 所謂 事後處理的 形式으로 나타난다. 先進國에서는 經濟가 發展하고 있기 때문에 問題는 보다 一層의 發展이다. 이 경우 長期的인 經濟發展이 計劃되고 達成되거爲해서는 사람들의 關心을 그 方面에 갖게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여기서 發展의 目標를 그들 사람의 福祉나 所得增大에 둘 것이 基本要件이 된다. 즉 所得隔差의 시정, 社會福祉, 農村更生, 環境改善, 都市貧民窟對策, 公衆衛生 등의 社會問題의 對策이 不

可缺하거 텐다. 이는 同時에 아직 잔존하는 非近代的 要素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必要한 것이며 그것이 達成됨으로써 비로서 先進國에 있어서 經濟發展은 完全한 것이 된다는 생각이다. 第二次大戰後 社會開發問題를 처음 세기한 國際聯合의 社會開發論은 經濟開發과의 關聯 밑에 規定되면서 初期에는 經濟發展이 가져오는 社會問題의 事後的 纠正이란 생각으로부터 점차 社會開發의 側面을 重視하는 方向을 指向하고 1970年代에 이르러서는 兩者가 對等한 위치를 忽定 받아 社會開發과 經濟開發와의 均衡있는 發展이 促求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運動은 先進國壘에 보다 接近하는 中進國壘에 屬한다고 할 수 있겠지.

한 國家가 富強하게 되어 國民들이 부유한 生活을 할 수 있는 것은 國民들이 남달리 부지런하여 生活을 윤택하게 함에 많은 努力を 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不毛의 土을 갖고 있으면서도 富裕한 生活, 훌륭한 文明을 이룩한 「덴마아크」, 「이스라엘」, 「뉴질란드」, 日本 같은 國家들의 近代化過程에서 보여준 것은 그 좋은例라 할 수 있겠다. 「덴마아크」나 「이스라엘」은 協同組合運動, 共同農場, 協業農場 등의 効果적인 地域社會開發運動을 展開하여 많은 成功을 보였으며 日本은 1956年 新農山漁村建設對策을樹立하여 「새로운 마을 만들기」란 구호 밑에 대대적인 農漁村開發을 推進하였던 것이다.

새마을 運動은 이러한 國家들의 近代化過程에서 보는 農漁村 잘 살기 運動을 韓國에서 韓國의 風土에 알맞게 實現하려는 試圖라 할 것이다.

「갈브리 이스」教授는 後進地域이 近代工業國家로 成長하려면 封建的인 經濟構造, 傳統的인 生活構造 否定的인 思考方式을 改革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러한 改革은 그 나라 政治指導者들의 直越한 指導力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論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第一次, 第二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成果 있는 遂行으로 封建的인 經濟構造, 傳統的인 生活構造, 否定的인 思考方式 등은 점차 시정되고 있으며 中進國家로의 부각과 함께 國民들에게는 努力에 따라 生活의 貧困을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封建的 經濟構造의 점차적 脫皮를 土臺로 해서 1970年 4月 22日 全國地方長官會議석상에서의 「農民關係機關指導者間에 協助을前提로 한 農村의 自助努力接作方案을 研究하라」는 朴大統領의 諭示를 비롯하여 새마을 運動의 發端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为務部에서는 全國 33,267個의 行政 里, 洞을 對象으로 새마을 가꾸기 運動을 展開하였는 바, 이것이 새마을 運動을 點火하는 契機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71年 7月의 全國地方長官會議, 1971年的 全國市長郡守比較行政會議, 1972年 3月 7日의 全國地方長官會議, 1972年 4月 11日의 青瓦臺 國務會議, 1972年 5月 18日의 새마을 所得增大促進大會를 거치는 동안 새마을 運動은 점차 具體化되고 積極的 實施를 보게 된

것이라고 알리져 있다.

여기서 1952年 全國地方長官會議에서의 決定事項을 要略해 보면 自助, 自立, 協同의 새마을 運動은 都市에서도 展開되어야 하며 이는 公務員, 農村指導者 및 住民이 三位一體가 되어 推進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 生產과 直結되고 住民의 所得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國民의 精神開發에 重點을 두고 非生產的인 傳來의 弊習을 退治하는 運動도 併行하고 나아가서는 教育은 生產과 直結되고 學校는 새마을 運動의 산타로서 役割을 해야 한다는 事項 등이 있다. 이로써 보건대, 우리 나라의 새마을 運動은 農漁村住民의 單純한 所得增大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都市를 포함하는 全國家的 運動이고 또한 舊習打破精神開發에 이르는 汎國家的인 運動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보건대 우리 나라의 새마을 運動의 基調는 第一, 二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遂行에 있어, 疎外된 農漁村地域의 重點的 開發과 나아가서 都市를 포함하는 全國家的인 經濟發展의 思想에 重點을 두고 아울러 汎國家的인 近代化思想을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經濟主義와 近代化政策은 中央의 政治的 指導에 依하여 誘導되었던 만큼 中央과 政府의 主導와 經濟的 生產重視의 問題가 內在하고 나아가서는 住民의 自發的인 參與의 缺如가 종종 問題視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住民自身이 主體의 으로 問題를 提起하여 가는 姿勢가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새마을 運動과 그 理念의 問題點과 課題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새마을 運動을 보다 發展的으로 全國民의 參與로 誘導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段階의 困難性에 面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現實의 으로 所得水準, 信條, 階層 등을 藉り하는 人口가 住民이라는 形態로 集合하고 있느니 만큼 여기에 個人과 地域社會의 利害關係나 政黨의 介入까지 混合되는 경우 果然 實効를 거두는데 지장을 초래할 餘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둘째로, 새마을 運動은 一種의 社會運動인 限에 있어서 必然的으로 政治的 性格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所得, 身分, 生活環境, 職業 等으로부터 오는 隔差와 그것에 隨伴하는 各種의 不均衡이 地域社會에 嚴然히 存在하고 있음이 事實이며 이러한 分析 없이는 오히려 地域內에 隔差擴大를 가져 올 危險性조차 없지 않으니 만큼 이러한 危險性을 克服하고 모든 住民이 參與하여 國民的 統合을 形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이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所謂 마을은 전통적으로 村落共同體로서 理解되고 있으며 또한 事實의 間直로서도 共同性을 지닌 行動은 이런 種類의 第一次的인 紐帶에 依한 共同行動이 되기 쉽다. 近代社會의 經驗이 없는 社會에 있어서 이러한 第一次的 共同體感覺의 培養과 定着이 또한 困難한 傾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 共同體型의 住民運動은 確實히 理念으로서는 理解할 수 있다 하지만 此種의 運動은 一層 歷史의 傳統,感情에 左右되는 것이므로 Leadership의 問題도 포함하여 보다 多

樣社形態와 內容으로 展開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섯째로, 이 새마을 運動은 당분간 政府의 支援敘이는 成立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地域社會開發政策이 劃一的으로 決定되고 사정이 다른 여러 地域社會에 一律的으로 推進되는 損害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住民들로 부터 提起되어야 할 性格의 開發方式과 內容이 政府가 主導가 되어 위로부터 提示되고 賦與된다는 事實 그 自體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政府主導型의 事業推進은 事實上 中央政府를 中心으로 하는 行政權力의 強化와 關聯이 되며 이 경우에 地域社會의 經濟, 社會, 文化 等의 諸條件의 改善이 地方住民과 政府當局과의 協同的 努力으로 이루어질 것이 바람직 하지만 實際사회에서는 오히려 中央集權과 地域民主主義와의 對立을 가져 올 危險性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새마을 運動은 農漁村 뿐만 아니라 都市住民, 軍隊 기타 各 領域에까지 擴大化 되는 傾向에 있는 바, 이를 地域이나 領域에서는 上層部와 下層部間에 意識의 隔差가 크니 만큼 새마을 運動과 住民의 參與는 困難한 條件이 적지 않다고 본다. 새마을 運動思想이 汎國家的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地域과 領域에 있어서의 運動參與의 樣式에 關한 創意性+研究가 要求되는 것이다.

要之 새마을 運動은 今後 果然 어느 程度의 位置와 比重을 地域開發計劃이나 또는 國家政策問題로서 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現在로서는 未知數이며 아직 全國的으로 定着되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또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도 그 實現에 있어서 많은 困難한 點이 있다는 것도 理解가 된다.

三. 새마을 運動의 理論體系

1. 새마을 運動의 政策目標

새마을 運動의 政策的 目標는 祖國近代化 作業에 基盤이 되는 意識構造의 改善과 祖國近代化를 爲한 環境改善 그리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完遂을 위한 國民總和體制의 形成 등 세 가지 方面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서 環境改善에는 經濟開發과 地域社會開發을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政策目標들은 實質上의 優先順位는 아니더라도 實施하는데 있어서 段階的으로 重點推進할 必要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見地에서 다음에 順次的으로 論하고자 한다.

가. 意識構造의 改善

意意識構造의 改善 目標는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및 精神的인 姿勢를 合理的으로 啓發하는 것을 意味하며 이를 詳說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丘代化된 社會의 市民으로서 올바른 價值觀의 確立이 前提되어야 하겠으며 여기에는 人生觀, 民族主體史觀, 國家觀 等과 같은 對社會的인 價值觀은 물론 모든 事物의 認識과

判斷基準이 되는 對物的인 價值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自助, 自立, 協同精神이 日常的으로 慣習化되고 生活化될 것이 기대되며 여기서 國民(市民, 住民, 國人)의 生活態度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個個人的生活의 合理化 및 健全화와 더불어 民族主體意識과 國家發展志向으로의 昇華가 기대되는 것이다.

셋째 地域社會發展計劃을 지속적으로 發展시키기 為해서 共同體感情 및 그 紐帶의 培養과 定着化가 戰略的으로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나 다만 이 경우에 地域的「egoism」(egoism)을 助長하면 廣域開發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國民的 統合에도 阻害要因이 될 危險性이 介在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할 必要가 있다.

나. 環境改善

環境改善에 있어서는 經濟開發과 地域社會開發中 兩者擇一을 하는立場을 떠나서, 적어도 經濟開發이先行하는 社會福祉政策이 追求되어야 하겠고 또 開發財源의 地域間 配分에 있어서도 당분간 經濟成長 為主로 資本의 限界効率이 높은 곳에 集中 投資를 하되 經濟成長과 地域隔差를 缓和할 수 있는 投資配分基準과 資本의 效率性的 判斷基準의 定立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見地에서 經濟開發面에서는 첫째 所得增大를 通하여 地域社會住民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과 同時に 그것이 國家發展에 底力과手段이 되어 地域社會開發의 基盤을 強化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農業 및 漁業構造를 工業構造와 立體的으로 系列化하고 構造的인 後進性을 脱皮도록 할 것이며, 셋째로 農漁村 構造의近代化를 위하여 技術을 開發하고 機械化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로 生產品의 價格의 保障과 市場의 開拓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國民經濟의 自立의in 기반을 構築하기 위한 食糧增產政策이 促求되는 바이며 住民共同利益事業이 + 協同事業이 장려되어야 하겠고 立地條件과 自然的in 特性에 맞는 事業計劃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마을 重動의 目標로서의 地域社會開發은 都市와 農村間의 地域隔差를 可及的 緩和하고 經濟, 社會, 文化等 各 分野에 걸친 農漁村社會의 綜合的in 開發을 이루함으로써 全國民이 一定水準以上의 文化生活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社會保障制가 실시되는 水準까지 이를 것을 理想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理想은 經濟開發을 促進하는 過程에서 또 경제개발과의 상호 補完關係에서 점진적으로 成就하여야 할 것이다.

다. 國民總和體制의 形成

세마을 運動+ 通하여 都市와 農村間의 不均衡을 緩和하고 國民이 自主的으로 또한 主體的으로 個人生活과 社會生活과 나아 가서는 國家生活에 參與함으로써 國民的 統合을 이루고 또한 國民과 政府間에 相互信賴하는 一體感이 增進됨으로써 名實相符한 國民總和體制를 形成하여 이를 土臺로 民族의 自主統一課業을 段階的으로 成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새마을 運動의 推進戰略

여기서는 새마을 運動에 對한 政府支援問題와 새마을 運動을 永續化하기 위한 基盤構築問題와 그리고 새마을 運動에 對한 全國民的인 參與問題를 中心으로 論하고자 한다.

가. 政府支援과 劃一性을 止揚한 永續化의 基盤構築

(1) 새마을 運動은 現段階에서 中央政府의 指導와 支援 및 共同投資가 要求되는 實態에 있다. 그렇다고 劃一的인 運動의 展開는 반드시 止揚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中央政府의 指導의 行割이 重要하지만 地域住民의 選擇과 輿論이 또한 尊重되고 單位地域의 環境과 立地條件를 考慮한 多樣한 樣式의 展開가 絶對 바람직하다. 즉 國家全體와 地域間 또는 地域相互間에 關聯을 配慮하고 國家目標, 上位計劃과의 關聯性을 無視할 수 없으나 각 마을 單位의 長期的인 自助開發目標를 設定하고 段階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한 見地에서 政府는 國土建設綜合計劃이나 또는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國家的役割과의 關聯性等의 觀點에서 資源과 共公投資의 合理的 配分을 폐할 것이며 漸次的으로 民間投資의 比重을 強化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새마을 運動의 劃一性을 止揚하기 위해서는 地方的인 傳統과 特殊性을 尊重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하며 人情과 風習과 傳統이 담긴 地方獨特한 個性을 지닌 새마을을 가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各地方에 알맞고 그 地域의 特性을 살리고 또는 그 特性에 順應한 그 地域나름의 未來像과 長期計劃을 設定할 必要가 있으며 적어도 航구적으로 存立繁榮할 수 있는 健康하고 安全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밝은 물과 공기를 保存하고 公害를 警防하며 人間尊重과 社會保障 및 福祉增進에도 긴 眼睛에서 留意해야 할 것이다.

(3) 持續的인 基盤을 構築하기 為해서 地域社會의 指導者 中心으로 自律的인 住民組織化가 要求되며 이를 土臺로 自助, 自立力量을 培養하므로써 장차 政府의 支援이 없더라도 恒久的으로 自律的인 힘에 依하여 展開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나. 全國民的인 參與誘導

새마을 運動을 위한 國民的인 參與에는 國民間에 信條, 身分, 階層, 所得 및 職業等의 隔差가 있느니 만큼 매우 困難한 問題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各種의 隔差를 克服하고 全國民運動化 하도록 指導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새마을 運動은 하나의 새로운 社會倫理, 새로운 모랄(Morale)과 價値關係의 確立를 目標로 삼고 究極히 推進될 때 이는 沈國民運動化 하고 國民總和體制를 形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새마을 運動은 政府의 리더십(Leadership)과 國民의 參與를 融合한 國民總和를 바탕으로 한 實踐的近代化 路線을 土着化 하려는 한 開發戰略으로서 推進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새마을事業推進의 主體

새마을運動은 그政策을立案하고 執行하는 政府의 公務員과 마을의 指導者 및 住民이三位一體가되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가. 現段階에서 中央政府의 指導的役割이 重要하나 地方住民의 主體의이고 自立의 能力培養이 促進되는 바이다. 行政指導가 必要한 경우란 地域社會에 指導者の 確保가 어렵고 財源確保가 難如되고 技術水準과 文化的 및 社會的인 諸般 여건이 成熟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元來 새마을運動은 그 主導權을 地域住民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行政指導는 助言의役割에 그치야 하는 것인데 後進地域의 수록 行政指導의 効果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行政指導와 行政支援과 技術支援과 財政支援을 신각할 수 있고 行政支援은 地域住民들로 하여금 自發的인 開發意慾을 觉醒시켜서 새마을運動을 적극 전개하도록 點火시키는 作用을 해야 하며 技術支援은 地域社會의 問題點, 自然的, 社會的 特性의 研究分析, 對象事業의 選定 및 優先順位決定 等과 관련된 專門技術의in 支援이며 財政支援은 住民의 意慾을 북돋우고 自助的인 努力を 促求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이루어지는 支援이다.

이와 같이 새마을運動이 本來 住民 스스로의 自發的인 發意와 意慾으로서 推進되는 民間主導下의 地域社會開發運動이라고 한다면 公務員이 그 推進에 介入할 素地는 制限된 것이라고 하겠다.

나. 指導者

여기서 指導者는 地域住民의 示範이 될 수 있는 先驅者的 所謂 自願指導者를 말하며 이런 종류의 指導者는 問題意識과 參與意識 그리고 責任意識과 使命意識을 가져야 하며 鼓舞者로서 開拓者로서 또는 社會組織者로서의 資質과 더불어 管理能力과 創意性을 具備하여야 할 것이다.

다. 地方社會의 住民

地域社會의 住民은 새마을運動推進에 主動的인 主體的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들 住民의 能動的인 參與와 動員이야 말로 새마을運動의 成敗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나 하겠다.

以上에서 우리는 새마을運動의 意義와 새마을進動의 問題提起論理 그리고 새마을運動의 理論體系의 關하여 論述하였다. 새마을進動이 하나의 永續的인 事業으로서 우리나라에 土着化하기 為해서는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인 實態에 맞도록 그 理論體系를 定立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